

환경 살리기, 불교계·시민사회 나서

지구의날 맞아 각종 행사도 잇따라

4월 22일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의 날'을 앞두고 불교, 환경단체들이 국민인식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 등 정부, 지자체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와 4대강 개발 계획, 지리산등 추진 등에 대한 대국민 환경의식 고취와 저변 확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상생환경법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19일 조계사 환경법회를 시작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환경법회'를 매일 개최한다. 조계사에서 실시된 첫 환경법회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법사로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발표했다. 다음 법회는 5월 24일 청계사, 6월 14일 광명 금강

사, 7월 22일 남양주 봉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법회를 위해 4월 생명살림 프로젝트인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물 받아 쓰기 △화장지 대신 손수건 쓰기 △장바구니 쓰기 등을 제안하는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는 '생명의 강' 사진전도 열었다.

#오체투지 동참 프로그램 개최= 불교환경연대는 4월 25일 '칠장사 사찰순례와 함께하는 오체투지 기도순례'를 개최한다. 안성 칠장사를 참배하고 오후에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 오체투지 순례단에 합류해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

월 11일에는 조계종 원우회(위원장 김한일)도 동참해 마곡사를 참배하고, 오체투지로 생명과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5월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동참비 2만원. (02)720-1654

#지구의날 걷기 퍼레이드=한국환경회의, 예코부터 등 환경단체들은 4월 19일 지구의날을 맞아 남산 백범광장일대에서 걷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를 위한 걷기'와 '숲을 위한 재생종이', '땅을 위한 먹을거리', '물을 위한 천연세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참가 시민들은 걸기뿐만 아니라, 재생 종이 물품전시전과 유기농 음식, 천연세제 등을 체험했다.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운동=불교환경연대와 국립공원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등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4월 12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활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중지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 정책 포기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향후 지리산, 설악산 등 주요 자연공원에서 서명활동을 이어나고, 5월 24일을 '케이블카 반대 대국민행동의 날'로 지정,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희망 잃지 마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장 일면)는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한두섬 희망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눔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악회를 찾은 환자들을 격려했다. 박재원 기자

홍안사 훼손사건 관련 이 모씨 긴급체포 4월 13일 홍안사 재난입해 시설물 파손해

이강수 덕진서장 종교편향위 항의에 "오해받아 유감"

'김해 홍안사 훼손사건' (본지 726·727호 보도)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이 모(49)씨가 4월 13일 또다시 홍안사주지 보현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다가 김해홍안사불교법난대책위원회(회장 조유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경주 총경)는 "이 모씨가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석하고 있는 스님의 퇴거를 주장하며 홍안

사에 재난입해 유리창과 창문, 출입문 등을 부수고 열장물을 뿌리는 등 사찰 시설을 파손해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서부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난입의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엄중처벌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경찰 워크샵 중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 낭독으로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킨 이강수 덕진경찰서장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16일 이강수 덕진서장 명의의 항의공문 회신을 공개했다.

이강수 덕진서장은 당초 논란 당시 "윌리엄 버클리의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는 맥아더 장군의 '이들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이라며 해명할 바 있다.

이 서장은 공문회신에서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에서 종교적 문구를 원문 그대로 사용, 종교편향 오해를 받게 돼 유감"이라며 "특정 종교에 편중되거나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사려 깊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평위는 덕진서 종교편향건을 비롯해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문구를 공식명함에 삽입해 사용한 서울시청 복지국 공무원 등 2건을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위반으로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 건에 대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세계 대장경' 기증 받는다

23일, 태국 방문단 동국대서 기증식 봉행

태국 왕실의 후원 하에 팔리어로 제작된 대장경(Tipitaka)을 로마자로 옮긴 '세계 대장경(World Tipitaka)' 40책이 국내 최초로 동국대학교에 기증된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4월 23일 태국 'World Tipitaka' 위원회 위원장인 버나그 교수(태국 아눅썬콘대) 등 20명이 동국대를 방문해 '세계 대장경'을 기증한다"고 4월 16일 발표했다.

팔리어로 된 대장경(Pali Tipitak)은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으로 번역됐다. 대승경전의 아함부에 해당하는 경전으로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에서 독송하는 경전이다.

이번에 동국대에 기증되는 '세계 대장경'은 1957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1999년부터 6년간 작업을 거쳐 로마자체로 제작된 표준적이고 전통지향적인 팔리어 본 대장경이다.



태국 왕실 후원으로 편찬된 '세계 대장경'.

책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대장경기술정보은행(Tipitaka Technology Data Bank)에 보관돼 있는 14개 이본에 대한 상호 참조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또 대장경(Tipitaka)과 관련한 연구자료, 인용, 발음에 관한 자료도 포함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받는 대장경은 남방불교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라며 "불교학 연구의 세계화에 더욱 큰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기증식에 이어 태국방문단과 '세계 대장경'의 국내 저작권 위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대장경' 창립판은 2005년 3월 6일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첫 증정됐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3월 6일을 '세계대장경의 날'로 선언하기도 했다. 기타 창립판 및 특별판은 스리랑카, 태국, 일본, 스웨덴, 네델란드 등에 기증됐다. 조동섭 기자

정각스님 소장 동해·독도 고지도展 고양어울림미술관서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옛 지도가 일전에 공개됐다. 독도사랑회(회장 김중성, 고양시의원이)가 4월 13~20일 고양 어울림미술관에서 개최한 '동해 및 독도 고지도전'에 스님의 지도가 전시된 것.

이번 전시에는 1732년에 제작된 프랑수아 왕실 지도제작자 당빌의 '중국전도'를 비롯해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한국과 일본,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67점이 전시됐다. 특히 당빌의 '중국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130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지도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佛紀2553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에서는
四月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등불을 밝히오니
우리 불자님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海東龍宮寺 주지
(財)海東佛教振興院 이사장 最庵 합장
(財)海東最庵獎學會 이사장

안 내

- 당일은 복잡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법요식 : 음력 4월 초파일 10시, 대웅전 앞
- 접수처 : (051) 722-7744, 7755

